기획예산처 | 보도설명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4.(수)

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국고채 조달금리보다 낮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4. 조선일보는 「국채 이자 4% 넘는데… 미래기금 투자때 목표 수익률은 3.8%」 기사에서,

○ “국고채 조달 금리는 지난해 평균 연 2.66%에서 올해 1~9월 평균 연 3.76%로 상승했다. 9월에는 연 4.25%까지 올랐다. 반면, 정부가 설정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최소 목표 운용 수익률은 연 3.8% 수준에 그친다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안정화, 안정적인 기금사업비 조달, 중장기자금의 수익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○ 향후 미래대응기금법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자산운용지침 제정을 통해 여유자금의 운용목적 별로 적정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 목표수익률은 여유자금의 목적에 따라 국채 조달금리 뿐만아니라 장·단기 자산군별 시장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.

□ 여유자금의 목표 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조달 금리보다 낮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사 내용중 "목표 수익률 연 3.8%"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시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해 초과달성할 최소 목표 수익률을 예시(국고채 3년물 수익률, 8.18일 종가기준)로 제시한 것임

담당 부서	재정성과국 자산운용준비단	책임자	단 장	정남희 (044-214-3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준 (stein99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